

신동엽 “‘동물농장’ 내겐 엄마같은 존재”



800회 맞은 SBS ‘TV 동물농장’ 16년간 인간·동물의 공존 그려 ‘반려동물’이란 말 자리잡아 뿌듯

SBS TV “TV 동물농장”이 지난 29일 800회를 맞았다. 2001년 5월 6일 첫 방송 후 만 16년을 꼬박 달려온 것이다. SBS의 장수 프로그램이자 ‘동물 전문 방송’으로 우뚝 선 ‘TV 동물농장’의 대기록은 한순간도 자리를 빼놓지 않고 지킨 이경홍 PD와 신동엽 등 명품 MC들이 있어 가능했다. 이경홍 PD는 “오랫동안 사랑해주신 시청자에게 감사하다”며 “실연후에 800회 특집을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 각별하다”고 전했다. 이 PD는 “TV 동물농장”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로 ‘반려동물’이란 말이 보편화한 점을 꼽았다.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반려동물’이란 말은 어색했고, ‘애완동물’이란 말이 널리 쓰였던 게 사실이다. 이 PD는 “저희가 ‘반려동물’이란 개념과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해왔다”며 “처음엔 그 말이 생소했지만, 시청자들이 관심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한 덕분에 동물보호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반려동물은 이해하고 교감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PD는 또 앞으로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자연에 있는 동물들이 이동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대한 관찰기를 카메라에 많이 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올바른 환경과 생태가 어떻게 갖춰져야 하는지 조명하려면 끊임없는 관찰이 필요하다”며 “동물에 대해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PD는 MC 신동엽에 대한 큰 신뢰를 드러냈다. 그는 “신동엽씨를 비롯해 MC들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가족 같은 존재”라며 “녹화장에서 눈빛만 봐도 어떤 얘기를 전달할지 바로 알 수 있는 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동엽씨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어떤 시선으로 동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며 “녹화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자주 하는데 동물과 교감하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엽도 ‘TV 동물농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다. 그는 “‘TV 동물농장’은 내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엄마’와 같은 존재다. ‘미운 우리 새끼’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치 창업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 큰 한 방을 도와주신 ‘아빠’의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V 동물농장’은 나를 정화해주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800회를 거치는 동안 ‘TV 동물농장’은 반려동물과 동물보호법 등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비한 법 규정과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으로 학대를 당하는 위태로운 동물들이 많다. 1000회, 2000회까지 ‘TV 동물농장’이 달려야 하는 이유다. 800회 특집에선 ‘희귀동물 퍼레이드’, ‘반려동물과의 이별’, ‘물건에서 가족으로-동물권 찾기’ 등의 내용이 전파를 타며 동물보호법의 현주소를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합뉴스

양현석

“박진영, 저보다 걸그룹 더 잘 만들어요”

‘K팝 스타’ 통해 좋은 인연 만나 기뻐

“박진영 씨가 저보다 감성이 여성적이어서 걸그룹을 더 잘 만들어요.”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48) 대표 프로듀서가 SBS TV ‘K팝 스타 시즌 6’에 함께 출연 중인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45) 대표 프로듀서에 대해 “현역 가수가면서도 자타공인 훌륭한 제작자이자 작곡가”라며 이렇게 칭찬했다. 양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트와이스가 요즘 인기인데 언젠가 ‘K팝 스타’ 대기실에서 박진영 씨에게 ‘여자 그룹을 더 잘 만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JYP의 워너비와 트와이스, YG의 투애니원과 블랙핑크는 스타일이 달라도 걸그룹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박진영 씨는 순수한 사람”이라며 “난 좋아해도 표정을 안 내는데, 박진영씨는 좋은 건 너무 좋다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스타일이다. ‘K팝 스타’가 재미있는 건 박진영씨 덕”이라고 웃었다. 역시 함께 심사위원으로 출연 중인 안테나의 유희열(46) 대표에 대해서도 “인간적”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유희열 씨는 카메라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동생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희열이 안테나를 운영하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신인을 선보인 데 대해 “뮤지션이니 사업적인 경험이 없어 아직 제작자로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소속 가수들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이 클 텐데 가능한 한 도움이 되고 싶을 정도로 아끼는 동생”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양 대표는 ‘K팝 스타’에서 심사를 맡는 세 사람의 심사 방식과 개그 코드가 달라 ‘개미’가 좋다고도 했다. 인터뷰 당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 사옥에는 ‘K팝 스타’에서 ‘팀 YG’에 뽑힌 크리시슈, 사넌 등의 출연자들이 연습 중이었다. 마지막 시즌인 올해는 참가 자격 조건을 없애 이미 소속사가 있는 연습생들도 도전했다. 양 대표는 “크리시슈, 김소희 등 다른 기획사 소속 연습생이지만 칭찬할 친구들이 여럿”이라며 “노래도 잘하고 퍼포먼스와 외모도 좋고 연습생으로서의 자세도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설 연휴에는 역시 코미디…‘공조’ 대세 인증

누적 관객 수 450만 돌파…‘더 킹’과 ‘쌍끌이 흥행’ 이어가

영화 ‘공조’가 ‘더 킹’과 흥행 대결에서 역전에 성공하며 설 연휴 극장가의 승자가 됐다. ‘더 킹’ 역시 ‘공조’에 밀리기는 했으나 ‘쌍끌이 흥행’을 이어가며 설 대목 특수를 누렸다. 지난 3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공조’는 설 연휴인 27~30일 나흘간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269만3915명을 불러모았다. ‘더 킹’은 이 기간 168만230명을 동원했다. 이에 따라 두 영화는 30일 나란히 400만 명을 돌파했다.

‘공조’의 누적 관객 수는 455만3771명으로 불어났고, ‘더 킹’은 426만5681명을 기록했다. ‘공조’는 개봉 첫주까지만 해도 ‘더 킹’에 밀렸으나 역전에 성공하며 ‘설 연휴에는 코미디 영화가 대세’라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는 나흘간 45만5705명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레지던트 이블: 괴멸의 날’은 35만5790명을 동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애나 불발>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힐링다큐 3부작 <나무야 나무야>(재) 55 숨터(재)	00 수목드라마 <김과장>(재)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재)	00 토닥토닥 꼬모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미생나인>(재)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폼지락 55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설기획 TV쇼 진품명품	00 비타민(재)		
2	55 다큐 공감(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몬스터 30 드림 주니어 스페셜	00 2시, 뉴스브리핑
3	45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자동차부착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이하 동물탐험대 55 프리파라 2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이사 콩도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프로젝트TV 필통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폼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5 공감다큐, 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김과장 특별판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특별기획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00 수목드라마 <미생나인>	00 수목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400g의 기적 연변축구 이야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40 동행	10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부모-위대함 엄마	14:5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일본 개항사 3부 제국주의의 그림자>	10:30 한국기행 <1월 최고의 오리비결 (낙지 돼지고기볶음)>	15:05 두키 탐험대	20:50 세계테마기행 <남국의 매력을 품은 섬, 타이완 3부 첫 편의 고산부족, 루기아>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35 요술상자(2)	21:30 한국기행 <오지마라 오지 3부 이 부부가 사는 법>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5:45 레이디비그(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15 두다다쿵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40 지식채널 e	16:30 놀이대장을 찾아라(재)	21:50 EBS 다크 프리덤 <한반도 대서사시 나무 3부 슈베르트와 나무>
07:45 꼬마버스 타요	12:45 EBS 초대석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08:00 당동당 유치원 1~2	13:40 오 마이 미래 2035 <신국환직업-신제품 개발자>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8:45 놀이대장을 찾아라	13:50 그림을 그려요(2)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22:45 극한직업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13:55 코코몽3(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23:35 장수의 비밀
09:15 시계마을 타키톡	14:25 책과 빵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9:30 EBS 뉴스	24:10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일(음 1월 5일 己未)	
子	48년생 배려된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이니라. 60년생 기쁜 일을 맞이함으로 인해 신명날 것이다. 72년생 그 어느 것으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 최후의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다. 84년생 곧 헤어지는 성국이다. 행운의 숫자 : 46, 82	午	42년생 응응의 묘리가 필요하다. 54년생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 미하다. 66년생 다소 하향 조절하라. 78년생 중간에 한 번의 위기만 잘 넘긴다면 뜻을 이루리라. 90년생 일관된 노력이 계속 된다면 반드시 만회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92, 30
丑	49년생 절실한 동세이니 적극적으로 응에 취야 한다. 61년생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법이다. 73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나. 85년생 물고기가 출현하여 변화여 용이 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68, 48	未	43년생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 것이니라. 55년생 돈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련된 수밖에 없다. 67년생 합리적인 관계 설정이 절실하다. 79년생 뒤처지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91년생 강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04, 25
寅	50년생 앞뒤려 있는 호랑이가 보이니 조심하라. 62년생 제대로 인식해야 대처 방안도 명확해진다. 74년생 몇 년 뒤됨이 되는 듯하다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 86년생 조금만 더 가면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91, 08	申	44년생 양자를 투명하게 비교해 보아야 한다. 56년생 근본적인 구조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날이다. 68년생 지금은 절대로 나서지 말고 잠자고 있어야 할 것이다. 80년생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은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07, 31
卯	51년생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정진하는 것이 이익이나. 63년생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75년생 부실한 판국이므로 잘 살펴보자. 87년생 주변의 사정과 상관없이 의연하게 일하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26, 20	酉	45년생 대체로 순류를 타게 되지만 변수도 보인다. 57년생 온 힘을 기울인다면 목표하여 왔던 바를 손에 넣을 수 있겠다. 69년생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익이 따른다. 81년생 안정이 곧 성공의 초석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53, 45
辰	52년생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64년생 빈틈없이 준비한 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만 하는 판국이다. 76년생 김홍의 쌍곡선이 길게 뻗어 오고다. 88년생 기초와 바탕이 견실하지 않다면 머지않아서 흔들리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38, 01	戌	46년생 먼 곳에서 찾은 필요는 없으니 눈 크게 뜨고 살펴보자. 58년생 형평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70년생 핵심을 짚어야만 효과가 커진다. 82년생 절호의 찬스를 놓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42
巳	53년생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65년생 전체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마자. 77년생 고행의 길이란 하지만 정래를 위한 보람은 있겠다. 89년생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7, 85	亥	47년생 의지가 확고하면 기필코 성사된다. 59년생 매우 귀중하다고 볼 수 있으니 여과 없이 참고함이 나올 것이다. 71년생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규모가 달라지겠다. 83년생 고뇌의 길이가 심해진다. 행운의 숫자 : 89, 23